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어제와 오늘, 국가가 기린다... 고(故) 신해철, 유재석, 한영애, 블랙핑크 등 문화훈장 수훈

- 10. 29.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1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개최
- 문화훈장 10명, 대통령 표창 7명(팀), 국무총리 표창 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 11명(팀) 등 총 36명(팀) 선정
- 가수·배우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인, 음악감독, 뮤지컬 배우,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 이하 콘진원)과 함께 10월 29일(목)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서울 중구)에서 ‘제1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후보자들의 공적 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10명, ▲대통령 표창 7명(팀), ▲국무총리 표창 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 11명(팀) 등 총 36명(팀)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가수와 배우, 희극인은 물론 라디오 방송인과 음악감독, 성우, 재즈 연주자, 뮤지컬 배우, 안무가, 공연·영화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원로 대중문화예술인부터 데뷔 10주년 블랙핑크까지 문화훈장 수훈

은관 문화훈장은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한 이후 밴드 ‘넥스트(N.EX.T)’ 등을 통해 실험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며 한국 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가수 고(故) 신해철이 받는다.

▲‘맘마미아!’, ‘시카고’ 등을 국내 무대에 올리며 40년 넘게 공연 제작 현장을 이끌어 온 공연제작자 박명성, ▲1966년에 데뷔해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등의 목소리를 맡아 온 성우 박영남, ▲반세기 넘게 한국 재즈 무대를 지켜 온 연주자 신관웅, ▲1991년 데뷔 이후 <무한도전> 등을 이끌어 30년 넘게 대표 방송인으로 활동해 온 희극인 유재석, ▲‘누구 없소’, ‘조율’ 등을 부르며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한영애에게는 보관 문화훈장을 수여한다.

옥관 문화훈장은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리사, 제니, 지수 4명 전원이 받는다. 블랙핑크는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고, 올해 2월에는 전 세계 대중음악인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팬덤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성과를 이어 왔다. 멤버 각자의 솔로 활동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활, 슈퍼주니어, 장항준, 이재 등 26명(팀)에게 대통령·국무총리·문체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은 ▲‘서른 즈음에’를 작곡하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36년간 음악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음악감독 강승원, ▲1985년 결성 이후 ‘희야’, ‘네버엔딩스토리’ 등으로 40년 넘게 한국 록의 명맥을 이어 온 밴드 부활, ▲‘쏘리 쏘리(Sorry Sorry)’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케이팝 열풍을 일으키고, 멤버 각자가 예능·연기·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해 온 가수 슈퍼주니어, ▲<왕과 사는 남자>, <베테랑>, <과료> 등 천만 영화 5편에 출연하며 출연작 누적 관객 1위에 오른 배우 유해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600만 관객을 넘기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감독 장항준, ▲<극한직업> 등 천만 영화 4편에 출연하고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류승룡, ▲<미안하다, 사랑한다>, <김부장> 등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배우 소지섭이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25년 넘게 라디오 <배미향의 저녁스케치>를 진행해 온 방송인 배미향, ▲<허수아비>의 악역부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현실적인 직장 상사까지 폭넓은 인물을 그려 온 배우 유승목, ▲<우리들>, <세계의 주인> 등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주목받은 감독

윤가은, ▲판소리 <사천가>, <억척가>를 만들어 무대에 올린 소리꾼이자 뮤지컬 배우 이자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Golden)’으로 빌보드 ‘핫 100’ 1위와 그래미상을 거머쥔 작곡가 이재, ▲<도깨비> 등 드라마와 천만 영화 <과묘>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여 온 배우 김고은,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스토브리그> 등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해 온 배우 오정세, ▲‘200%’, ‘오랜 날 오랜 밤’ 등을 직접 만들고 부른 남매 가수 악뮤(AKMU)가 수상한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 표창은 총 11명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행님아’부터 예능과 라디오, 연기까지 활동을 넓혀 온 희극인 김신영, ▲유튜브 ‘숏박스’로 새로운 코미디 흐름을 만든 희극인 김원훈,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이름을 알리고 케이팝 안무를 이끌어 온 안무가 리정, ▲<더 글로리>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배우 임지연,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자 장원석, ▲<폭삭 속았수다> 등에서 존재감을 보여 온 배우 최대훈,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박지훈, ▲<중증외상센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윤경호, ▲<미스터트롯>으로 사랑받은 가수 장민호, ▲‘믹스팝’이라는 독자적인 음악 색깔을 선보여 온 가수 엔믹스, ▲데뷔 6년 만에 미국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가수 엔하이픈이 받는다.

시상식 사회는 방송인 강지영과 배우 황인엽이 맡으며,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La:POEM)’과 문화훈장 수훈자인 가수 한영애가 축하 공연을 펼친다. 시상식 영상은 행사 이후 대중문화예술상 공식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 수상자들은 무대와 방송, 영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국민과 함께하며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온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이들이 남긴 발자취와 공로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도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장	김유미 (044-203-3291)
		담당자	사무관	이준호 (044-203-3294)